

학령기 아동에서 어머니-아동 기질 관계와 양육스트레스 연구

유경¹ · 김락형² · 유승택^{3*}

¹백은언어심리센터, ²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 ³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Abstract

Relationships between Mother-Child Temperamental Interactions and Parenting Stress in Korean School-Aged Children

Yu Gyung¹ · Kim Lak Hyung² · Yu Seung Taek^{3*}

¹Balgeun Speech-Language Clinic, ²Dept. of Neuropsychiatry Woosuk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³Dept. of Pediatrics Wonkwa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and child's temper and parenting stress

Methods

One hundred twenty healthy mothers (above 20 yrs old) who has a school-aged child (7-11 yrs old) participated after informed consent. The temperament of the children was analyzed by 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7-11 (JTCI 7-11) by their mothers. The temperament of the mothers was analyzed by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Revised Short (TCI-RS) and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was analyzed by the Korean Parenting Stress Index (K-PSI).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and child's temperament and parenting stress were assessed using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test.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maternal temperaments and child's temperaments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other's harm avoidance characteristic, child's novelty seeking degree and parenting stres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hild's persistence and parenting stress. In addition, interactions between child and mother temperament dimensions predicted higher levels of parenting stress. Parenting stress was higher in the group of high mother's harm avoidance with child's high novelty seeking and high mother's harm avoidance with low child's persistence.

Conclusions

These results are showing that there a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mother and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stress in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Key words : Parenting stress, Temperament, TCI, K-PSI

I. Introduction

자녀의 양육은 부모에게 있어 기쁨이며 보람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책임과 스트레스를 가지는 과정이다. 현대사회의 경제적 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은 부모가 가지는 책임과 역할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며 많은 양육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다.

자녀 양육에서 부모가 가지는 양육스트레스는 심리적 부담감은 물론,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며,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약화시켜 역기능적이고 부당한 양육행동을 가져오게 된다¹⁾.

어떤 아이는 보다 반응적이고 다루기 쉽지만 어떤 아이는 그 반대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부모 또한 부모역할에 대한 재능과 지식, 기질적 소인이 서로 다를 수 있다^{1,2)}. 아동이 정서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는 경우, 지나치게 활동적인 경우 어머니는 아동과 부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그들이 아동이 더 다루기 어렵다고 느끼며 계속되는 아동의 불순종과 반항으로 인하여 낮은 부모 효능감을 가지며 높은 스트레스를 느낀다. 지나치게 활동적이며 공격적 행동의 아동,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의 부모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또한 자녀의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자존감과 부모로서의 자신감이 손상되어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더욱 빈번하게 한다. 또한, 부모가 양육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어머니의 우울과 같은 부모의 특성에도 관련되며, 가계소득, 자녀수, 남편의 직업, 사회적 지지, 부부 만족도와 같은 가족 환경적 변인에도 관련된다³⁾.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Abidin의 이론적 모델에서는 부모의 고통,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에 의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는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까다로운 아동에서는 아동의 적응, 요구, 기분, 주의산만/과잉행동과 기질, 자기조절능력을 포함하며, 부모의 고통은 우울, 역할제한, 고립, 배우자관계가 포함되고,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수용, 강화, 애착을 포함한다²⁾.

기질은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 성향이며, 다분히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으로서 일생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을 보인다^{4,6)}. 기질은 인성발달의 원재료이며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는데, Cloninger의 기질 및 성격검사에서는 4가지 기질차원인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의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기질 및 성격검사에서의 기질차원들은 양육스트레스의 부모 요인과 아동요인에서의 부모나 아동의 특성을 구성하는 기초적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⁷⁾.

부모와 아동의 조화로운 관계는 아동의 이상적 발달의 중요한 조건이며, 사고, 정서, 행동 등 발달의 전반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8,9)}. 그동안 부모-아동의 기질에 대한 연구들에서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 적합성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며¹⁰⁾,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상호작용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 기질 및 성격검사를 이용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아동 기질 상호관계는 외현화 및 내현화 문제행동 및 주의력의 문제를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아동의 높은 자극추구와 어머니의 높은 자극추구의 결합은 아동의 주의력의 문제를, 아동의 높은 위험회피와 아버지의 높은 위험회피는 아동의 내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된다고 연구되었다¹¹⁾. 또한, 어머니의 위험회피가 아동의 내현화 문제행동에, 아동의 자극추구와 어머니의 위험회피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며, 아동과 어머니의 위험회피 점수차가 클수록 문제행동이 덜하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¹²⁾.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와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양육스트레스에 있어서 어머니-아동 기질의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II.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대상 및 자료의 수집

만 7-11세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2012년 3월부터 동년 8월까지 공고문을 통해 모집하였고, 120명의 어머니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외기준은 설문지를 읽고 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해당하는 경우는 없었다. 자녀 중 만 7-11세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준비된 무작위배정표에 의해 한명의 아동을 정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우석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 (WSOH IRB 1203-01)을 거쳐 진행되었다.

2. 측정도구

1) 한국판 부모양육 스트레스 검사 단축형 (Korean-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K-PSI SF)^{2, 1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한국판 부모양육스트레스 검사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이는 Abidin 등이 개발한 부모양육스트레스 척도 Parenting Stress Index의 축약형으로 정경미 등²⁾이 2008년 한국어로 표준화하였다. PSI 축약형은 1-12세 아동을 둔 부모의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부모와 아동관계 내에서의 스트레스를 짧은 시간에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로서 개발되었다.

총 스트레스 점수와 하위척도인 부모의 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총 스트레스 점수는 개인이 경험하는 전반적인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주며, 부모의 고통 하위척도는 부모가 부모역할을 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며, 역기능적 상호작용 하위척도는 자녀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부모와 부모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주지 않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며, 까다로운 아동 하위척도는 아동이 보이는 일부행동특성에 중점을 둔다.

전체 36문항으로 각 하위척도는 12문항씩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2) 기질 및 성격검사-아동용 (JTCI 7-11)⁷⁾

아동의 기질 평가는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3-6: JTCI 3-6)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기질 및 성격검사-유아용은 Goth 등이 2003년 개발한 것으로, 한글판은 2007년 민병배 등에 의하여 표준화되었다. 한국판 JTCI 3-6은 유아를 잘 알고 관찰할 수 있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 등에 의하여 평가되며, 총

8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기질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JTCI의 검사 항목은 4가지 기질차원 항목인 자극추구 (Novelty Seeking, NS), 위험회피 (Harm Avoidance, HA), 사회적민감성 (Reward Dependence, RD), 인내력 (Persistence, P)과 3가지 성격차원 항목인 자율성 (Self-Directedness), 연대감 (Cooperativeness), 자기 초월 (Self-Transcendence)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4가지 기질차원을 사용하였다.

3) 기질 및 성격검사-성인용 (TCI-RS)⁷⁾

어머니의 기질 평가는 기질 및 성격검사-성인용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Revised Short : TCI-RS)을 사용하였다. 기질 및 성격검사-성인용은 Cloninger 등에 의해 2003년에 개발되었으며, 심리생물학적 인성 모델에 기초하여 한 개인의 기질 및 성격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이다. 본 연구에는 민병배 등이 2007년 표준화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TCI-RS는 총 140 문항으로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기질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TCI-RS의 기질차원 영역인 자극추구 (Novelty Seeking), 위험회피 (Harm Avoidance), 사회적민감성 (Reward Dependence), 인내력 (Persistence)의 4가지 영역을 사용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어머니의 연령과 아동의 연령과 형제 수, 부모양육 스트레스 총점 및 하위척도,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의 4가지 요인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student t-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연령, 아동의 형제 수, 아동의 연령,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하위척도들과 함께 부모양육스트레스 검사 총점 및 하위척도인 부모의 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의 점수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합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에서 상관성이 높은 어머니의 위험회피 점수와 아동의 자극추구 점수, 어머니의 위험회피 점수와 아

동의 인내력 점수의 역수, 어머니의 사회적민감성 점수의 역수와 아동의 자극추구 점수, 어머니의 사회적민감성 역수와 아동의 인내력 점수의 역수를 곱하여 양육스트레스의 총점 및 하위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부모양육스트레스 총점 및 하위척도인 부모의 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 점수 각각에 대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합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기질 점수 50%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어 어머니의 위험회피와 아동의 자극추구에 따른 4개 집단의 차이, 어머니의 위험회피와 아동의 인내력에 따른 4개 집단의 차이에 대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Duncan의 사후분석을 이용하여 구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의 결과값은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 $p < 0.01$ 으로 살펴보았다.

III. Results

1. 연구대상의 일반 특성

연구대상 아동과 아동의 어머니는 각 120명이었으며, 남아 60명, 여아 60명 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7.57 ± 3.15 세, 아동의 연령은 8.91 ± 1.45 세 이었으며, 아동의 형제 수는 2.01 ± 0.64 명 이었다. 성별에 따른 어머니와 아동의 연령, 아동의 형제 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성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기질, 아동의 기질의 차이

양육스트레스 검사의 부모의 고통은 37.33 ± 27.06 점,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37.43 ± 29.62 점, 까다로운 아동은 40.05 ± 29.75 점, 총점은 37.25 ± 28.44 이었으며, 양육스트레스 총점 및 하위척도 점수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점수도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p-value for Age of Mother, Numbers of Siblings, Age of Child and PSI and TCI in Boys and Girls.

	Boys (n=60)				Girls (n=60)				Total (n=120)				Gender difference
	Mean	SD	min-	max	Mean	SD	min-	max	Mean	SD	min-	max	p
Age of mother	37.65	3.27	30	47	37.48	3.04	31	44	37.57	3.15	30	47	0.773
No. of Siblings	1.90	0.63	1	4	2.12	0.64	1	4	2.01	0.64	1	4	0.064
Age of child	8.88	1.44	7	11	8.93	1.47	7	12	8.91	1.45	7	12	0.851
Parental Stress Inventory (PSI)													
Mother	41.48	27.87	1	96	33.18	25.79	1	99	37.33	27.06	1	99	0.934
Mother-Child	39.72	31.86	1	99	35.13	27.26	1	98	37.43	29.62	1	99	0.119
Child	43.25	30.89	1	99	36.85	28.46	1	96	40.05	29.75	1	99	0.083
Total Stress	41.05	30.74	1	99	33.45	25.63	1	97	37.25	28.44	1	99	0.260
Temperament of mother													
NS	49.50	10.18	31	75	49.65	9.54	30	70	49.58	9.82	30	75	0.167
HA	52.87	9.52	33	79	50.05	10.12	30	77	51.46	9.88	30	79	0.471
RD	49.92	11.65	20	73	53.22	8.87	37	79	51.57	10.44	20	79	0.067
P	45.70	9.48	26	68	47.72	10.04	28	74	46.71	9.78	26	74	0.209
Temperament of Child													
NS	52.55	12.47	32	89	49.57	11.01	29	76	51.06	11.81	29	89	0.093
HA	48.18	8.91	27	66	49.43	10.00	28	71	48.81	9.45	27	71	0.399
RD	50.22	8.48	27	71	53.32	9.84	21	71	51.77	9.28	21	71	0.240
P	48.47	10.11	28	73	50.83	10.43	29	76	49.65	10.30	28	76	0.144

NS : novelty-seeking, HA : harm-avoidance, RD : reward-dependence, P : persistence

Mother : Mother's Parental Distress, Mother-Child :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Child : Difficult Child, Total : Total Parenting Stress
p : p values by student t-test

3. 어머니 및 아동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와 관계

어머니와 아동의 나이, 아동의 형제 수,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과 나이는 까다로운 아동 점수와 어머니의 나이는 까다로운 아동, 총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위험회피는 총 스트레스 및 모든 하위척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사회적 민감성은 부모의 고통, 까다로운 아동, 총점과 인내력은 부모의 고통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아동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극추구는 총 스트레스 및 모든 하위 척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인내력은 총 스트레스 및 모든 하위척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양육스트레스 총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어머니의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과 아동의 자극추구, 인내력의 조합과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위험회피*자극추구, 위험회피*인내력, 사회적 민감성*자극추구, 사회적 민감성*인내력 (어머니의 기질*아동의 기질) 모두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모든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4.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 및 아동의 기질의 영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척도의 총점과 하위척도에 대한 어머니의 기질과 아동의 기질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위험회피와 아동의 자극추구는 부모의 고통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며, 아동의 자극추구와 인내력은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며, 또한 까다로운 아동을 유의하게 설명해주었다 또한 어머니의 위험회피와 아동의 자극추구, 인내력은 총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설명해주었다.

5. 어머니의 위험회피와 아동의 자극추구 기질 조합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어머니의 위험회피와 아동의 자극추구 점수의 상위 50% 이상과 미만을 기준으로 나눈 4개의 군간 양육스트레스 점수의 비교에서, 총점 및 부모의 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 점수 모두에서 군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Duncan의 사후분석 결과 군간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특히 어머니의 낮은 위험회피, 아동의 낮은 자극추구 그룹이 어머니의 높은 위험회피, 아동의 높은 자극추구 그룹에 비해 특히 낮은 양육스트레스를 나타내었다.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Parental Stress and Temperament of Child and Mother

	Parental Stress Inventory (PSI)			
	parent	parent-child	child	total
Age of mother	-0.141	-0.072	-0.188*	-0.148
No. of Siblings	0.004	0.055	0.017	0.030
Age of child	-0.149	-0.179	-0.297**	-0.245**
Temperament of mother				
NS	0.039	0.080	0.165	0.108
HA	0.524**	0.250**	0.228*	0.408**
RD	-0.204*	-0.170	-0.243**	-0.242**
P	-0.215*	-0.165	-0.014	-0.143
Temperament of Child				
NS	0.278**	0.345**	0.583**	0.476**
HA	0.034	0.207*	0.176	0.175
RD	-0.032	-0.226*	-0.149	-0.154
P	-0.216*	-0.363**	-0.359**	-0.366**
Mother and Child				
HA*NS	0.501**	0.411**	0.570**	0.590**
HA*P	0.444**	0.380**	0.388**	0.484**
RD*NS	0.356**	0.297**	0.498**	0.467**
RD*P	0.345**	0.377**	0.445**	0.470**

NS : novelty-seeking, HA : harm-avoidance, RD : reward-dependence, P : persistence
 Mother : Mother's Parental Distress, Mother-Child :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Child : Difficult Child, Total : Total Parenting Stress
 * p<0.05, **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test

Table 3. Multi Regression Analysis between PSI and Temperaments of Child and Mother

	U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B	SE	β		
PSI - Mother					
mother HA	1.367	0.258	0.499	5.301	<0.001
child NS	0.481	0.210	0.210	2.287	0.024
F=7.495, p<0.001, R2=0.351					
PSI - Mother and Child					
child NS	0.777	0.243	0.310	3.195	0.002
child P	-0.647	0.261	-0.225	-2.477	0.015
F=5.254, p<0.001, R2=0.275					
PSI - Child					
child NS	1.354	0.214	0.537	6.324	<0.001
child P	-0.650	0.230	-0.225	-2.826	0.006
F=11.027, p<0.001, R2=0.443					
PSI - total					
mother HA	0.769	0.259	0.267	2.970	0.004
child NS	0.995	0.211	0.413	4.713	<0.001
child P	-0.572	0.227	-0.207	-2.524	0.013
F=9.542, p<0.001, R2=0.407					

NS : novelty-seeking, HA : harm-avoidance, P : persistence

Mother : Mother's Parental Distress, Mother-Child :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Child : Difficult Child, Total : Total Parenting Stress
 Statistical analysis by Multiple regression test

Table 4. One Way ANOVA Test for PSI between Groups by Mother's HA and Child's NS

	MoLowHA and ChLowNS N=34		MoLowHA and ChHighNS N=26			MoHighHA and ChLowNS N=31			MoHighHA and ChHighNS N=29			Total N=120		p-value	
	M	S.D	M	S.D	ab	M	S.D	b	M	S.D	b	M	S.D		
Mother	19.97	16.41	a	36.69	24.6	ab	44.23	29.76	b	50.9	26.38	b	37.33	27.06	<0.001
Mother-Child	27.53	23.18	a	41.5	32.57	ab	34	26.61	ab	49.03	33.2	b	37.43	29.62	0.025
Child	24.53	22.26	a	54.77	25.83	b	29.58	24.24	a	56.24	32.64	b	40.05	29.75	<0.001
Total	20.94	18.62	a	43.92	29.02	bc	34.1	24.7	ab	53.76	31.08	c	37.25	28.44	<0.001

Mo : Mother, Ch : Child, Mother : Mother's Parental Distress, Mother-Child :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Child : Difficult Child, Total : Total Parenting St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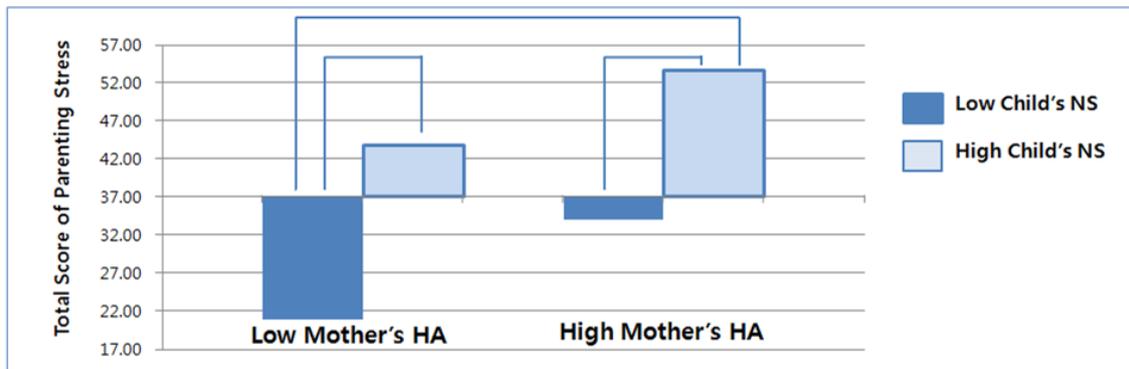


Fig. 1. Parenting stress index (PSI) total scores between groups by mother's Harm Avoidance and child's Novelty Seeking.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connected each other with solid line.

Table 5. One Way ANOVA Test for PSI between Groups by Mother's HA and Child's P

	MoLowHA and ChLowP N=29		MoLowHA and ChHighP N=31		MoHighHA and ChLowP N=26		MoHighHA and ChHighP N=34		Total N=120		p-value				
	M	S.D	M	S.D	M	S.D	M	S.D	M	S.D					
Mother	30.45	22.47	ab	24.19	21.15	a	49.94	26.33	c	43.71	30.86	bc	37.33	27.06	<0.001
Mother-Child	41.55	29.58	ab	26.13	25.21	a	50.89	30.93	b	26.83	24.38	a	37.43	29.62	0.001
Child	44.83	27.78	ab	30.90	27.08	a	53.36	29.10	b	26.13	27.82	a	40.05	29.75	0.001
Total	37.62	27.87	ab	24.61	23.10	a	52.72	28.71	b	29.92	25.35	a	37.25	28.44	<0.001

Mo : Mother, Ch : Child, Mother : Mother's Parental Distress, Mother-Child :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Child : Difficult Child, Total : Total Parenting St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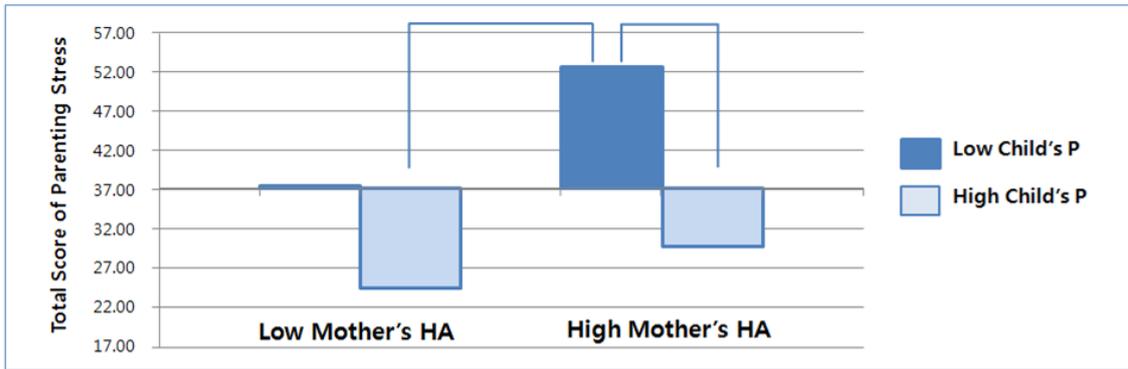


Fig. 2. Parenting stress index (PSI) total scores between groups by mother's Harm Avoidance and child's Persistenc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connected each other with solid line.

6. 어머니의 위험회피와 아동의 인내력 기질 조합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어머니의 위험회피와 아동의 인내력 점수의 50% 이상과 미만을 기준으로 나눈 4개의 구간 양육스트레스 점수의 비교에서, 총점 및 부모의 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 점수 모두에서 구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Duncan의 사후분석 결과 구간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특히 어머니의 낮은 위험회피, 아동의 높은 인내력 그룹이 어머니의 높은 위험회피, 아동의 낮은 인내력 그룹에 비해 특히 낮은 양육스트레스를 나타내었다.

IV. Discussion and Conclusion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나타나는 특정아동의 성격, 부모의 특성, 상황적 변수에 의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특성인 적응, 수용, 요구, 기분, 과잉행동과 주의산

만, 보상 등의 요인과 함께 부모의 특성인 건강, 우울, 유능감, 성격과 정신병리,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 역할제한, 사회적 지지 등이 관련되며 발생하며 이는 역기능적 양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2)}.

본 연구에서 아동의 자극추구는 양육스트레스의 까다로운 아동 하위척도 점수 및 역기능적 상호작용, 총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인내력은 동일한 항목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극추구가 높은 아동, 인내력이 낮은 아동의 부모는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위험회피는 양육스트레스의 부모의 고통 및 총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위험회피가 높은 어머니에서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어머니의 기질척도 중에서 위험회피, 아동의 기질척도 중에서 자극추구가 양육스트레스에서 부모의 고통을, 아동의 자극추구와 인내력이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며, 어머니의

위험회피와 아동의 자극추구, 인내력이 총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설명해주었다.

자극추구란 흥분과 보상을 추구하는 탐색 활동, 처벌과 단조로움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성향이며,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은 성미가 급하고 쉽게 흥분하며 탐색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열정적이면서도 쉽게 지루해하고 자유분방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인내력이란 강화가 없더라도 한 번 보상된 행동을 일정한 시간 꾸준히 지속하는 성향으로 낮은 사람은 게으르고 비활동적이며 일관성과 끈기가 부족하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으며 쉽게 좌절하고 포기한다⁷⁾.

이러한 특성들은 양육스트레스 검사의 까다로운 아동에서 측정하는 반항, 공격적 행동, 강요, 대가 요구 등과 관련되고, 주의산만 과잉행동, 울음 위축 우울과 관련된 기분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변화와 과도기를 잘 견디는지와 고집 부림, 다양한 회피행동과 관련된 적응 척도와 유사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역기능적 상호작용 또한 아동의 높은 위험회피 및 낮은 인내력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위험회피란 처벌이나 위험이 예상될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해 행동이 억제되며 이전에 하던 행동을 중단하는 성향이며, 이 척도가 높은 사람은 조심성이 많고 잘 긴장하며 겁이 많고 안정을 중시하며 수동적이며 걱정이 많고 비관적인 경향을 보인다⁷⁾. 어머니에서의 이러한 특성은 양육스트레스의 부모의 고통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부모의 고통 요인인 저하된 양육 효능감,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다.

스트레스는 환경적인 압력이 개인의 적응역량을 넘어선 경우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자극이 누구에게나 같은 반응이나 대처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차를 보인다. 즉, 스트레스는 요구에 응하는 신체의 비특유 반응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란 개인을 위협하는 환경자극인 동시에 개인 자신의 특유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⁸⁾.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또한 아동의 특성 외에도 부모 자신의 특성의 영향을 받으며, 아동 또는 부모의 각각의 기질 외에 둘 사이의 조합에 따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가 있을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성격이 맞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로 힘들어하게 되며 이때 부모는 아동의 기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구

되었다¹⁴⁾. 또한 아동의 기질특성과 이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의 차이를 기질조화적합성이라 정의하고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반응강도와 까다로운 아동에서, 적응성, 주의전환성과 총 스트레스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¹⁰⁾.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및 성격검사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극추구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위험회피가 내현화 문제행동에 높은 상관을 나타내며, 어머니-아동의 기질 상호작용에 있어 어머니의 측정치에서 아동의 측정치를 빼 값을 이용하여 살펴본 어머니-아동 기질 상호작용에서 위험회피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및 총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였다¹²⁾. 이는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기질 적합성 Goodness of Fit이라는 개념적 접근 방법으로 기질차원에 대해 어머니의 측정치에서 아동의 측정치를 빼 값을 사용한 것이다^{10,12)}.

또 다른 부모-아동의 기질 성격검사와 문제행동 연구에서는 아동의 높은 자극추구와 어머니의 높은 자극추구의 결합이 아동의 집중력의 문제와 관련되며, 아동의 높은 위험회피와 아버지의 높은 위험회피가 아동의 내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된다고 하였다¹¹⁾.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어머니의 각각의 기질척도와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여기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인 아동의 자극추구, 인내력과 어머니의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의 각각의 점수 또는 역수를 곱하여 이에 대해 양육스트레스와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영향을 주는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자극추구와 인내력, 어머니의 위험회피가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아동의 기질 관계와 양육스트레스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어머니의 위험회피와 아동의 자극추구 점수의 상위 50% 이상과 미만을 기준으로 나눈 4개의 구간 양육스트레스 점수를 비교하였으며, 어머니의 위험회피와 아동의 인내력 점수의 상위 50% 이상과 미만을 기준으로 나눈 4개의 구간 양육스트레스 점수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기질과 아동의 기질의 상호작용에서 특히, 낮은 위험회피 어머니 * 낮은 자극추구 아동 그룹이 높은 위험회피 어머니 * 높은 자극추구 아동 그룹에 비해 특히 낮은

양육스트레스를 나타내었다. 또한 낮은 위험회피 어머니, 높은 인내력 아동 그룹이 높은 위험회피 어머니 * 낮은 인내력 아동 그룹에 비해 특히 낮은 양육스트레스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기질간 상호작용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이번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아동의 양육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아버지의 기질과 아동의 기질과의 상호작용과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아동의 문제행동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특히 어머니와 아동의 특정 기질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기질 조합에 의한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문제행동 등에 대한 연구가 이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상현장에서 아동과 부모의 기질을 고려한 상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cknowledgement

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in 2014

References

1. Abidin RR. Parenting stress index: professional manual. 3rd edition.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5.
2. Jung KM, Lee GS, Park JA. Korean parenting stress index. Seoul. Hakjisa. 2008;3-6, 13-5, 52-5, 59-64.
3. Choi YH.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s temperament and parenting stress of father's. Master's Thesis of Sukmyung University. 1992.
4. Chung KM, Lee KS, Park JA, Kim HJ. Standardization study for the 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 (K-PSI). Korean J Clin Psychol. 2008;27(3):689-707.
5. Susan C. Cloninger. Theories of personality. Prentice Hall. 2007:267-74.
6. Gillespie NA, Cloninger CR, Heath AC, Martin NG. The genetic and environmental relationship between cloninger's dimensions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03;35:1931-46.
7. Min BB, Oh HS, Lee JY.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family manual. Seoul. Maumsarang. 2007:6-14.
8. Jung HM, Ahn MS. Relationship between goodness-of-fit for mother-preschool child and parenting stress in mother J Korean Acad Nurs. 2009;39(1):53-61.
9. David C, Rettew DC, Stanger C, McKee L, Doyle A, Hudziak JJ. Interactions between child and parent temperament and child behavior problems. Compr Psychiatry. 2006;47(5):412-20.
10. Ha HY, Jung HR, Lee SJ, Chae H. Studies on relations between goodness of fit in mother-children temperament interaction and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J Pediatr Korean Med. 2013;27(2):11-9.
11. Lee KS, Chung KM, Park JA, Kim HJ.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y for the 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K-PSI-SF). Korean J Woman Psychol. 2008;13(3):363-77.
12.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Korean medicine neuropsychiatry. Seoul. Jipmoondang. 207:104.
13. Chess S, Thomas A. Goodness of fit: clinical application from infancy through adult life. Philadelphia, PA: Brunner/Mazel. 1999.